



Contents

- 단원 소개

- 활동필드 소개

- 스리랑카
- 칼라
- 칼라YMCA

- 주요 활동

- 리서칭
- 아띠스쿨
- 도서관 만들기
- 350ppm 캠페인
- NCY-SL 유스워크숍
- Excursion

- 개인 소감

단원 소개



영선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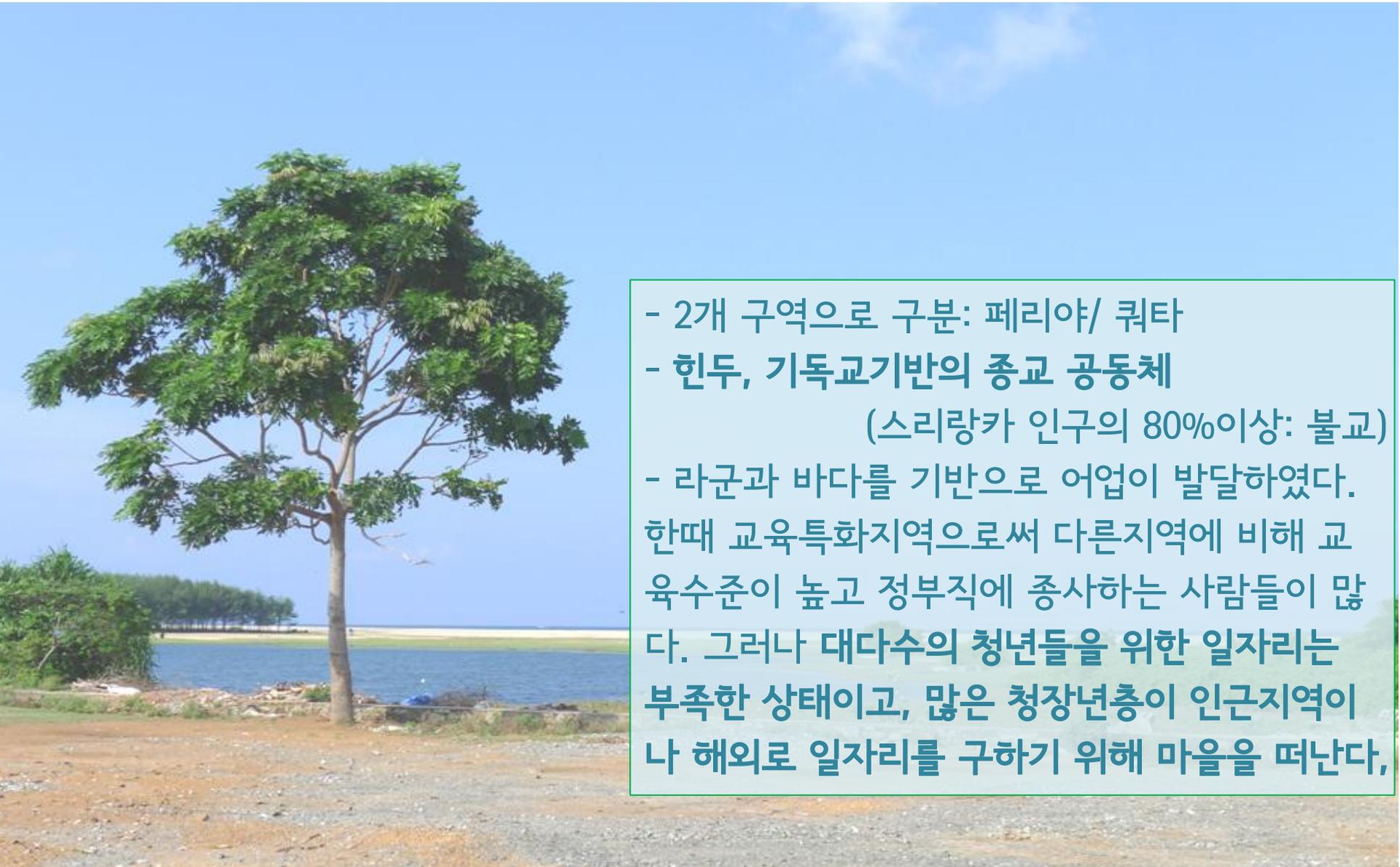


두희

나래



활동필드 - 칼라



- 2개 구역으로 구분: 페리야/ 쿼타
- 힌두, 기독교기반의 종교 공동체
(스리랑카 인구의 80%이상: 불교)
- 라군과 바다를 기반으로 어업이 발달하였다.
한때 교육특화지역으로써 다른지역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정부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대다수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부족한 상태이고, 많은 청장년층이 인근지역이나 해외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마을을 떠난다,

활동필드 - 칼라

쓰나미

- 2004년, 인도양의 지진 해일로 스리랑카 동부 대부분의 해안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 칼라 역시 절반이상의 지역이 쓰나미로 인해 가옥의 파괴, 생활기반의 파괴등 피해를 입었다.
- 당시, 칼라YMCA는 피해주민들들에게 식수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구호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 현재, 피해지역 대부분이 복구 및 재건 되었으나 여전히 12월이 되면 주민들은 쓰나미를 떠올리며 불안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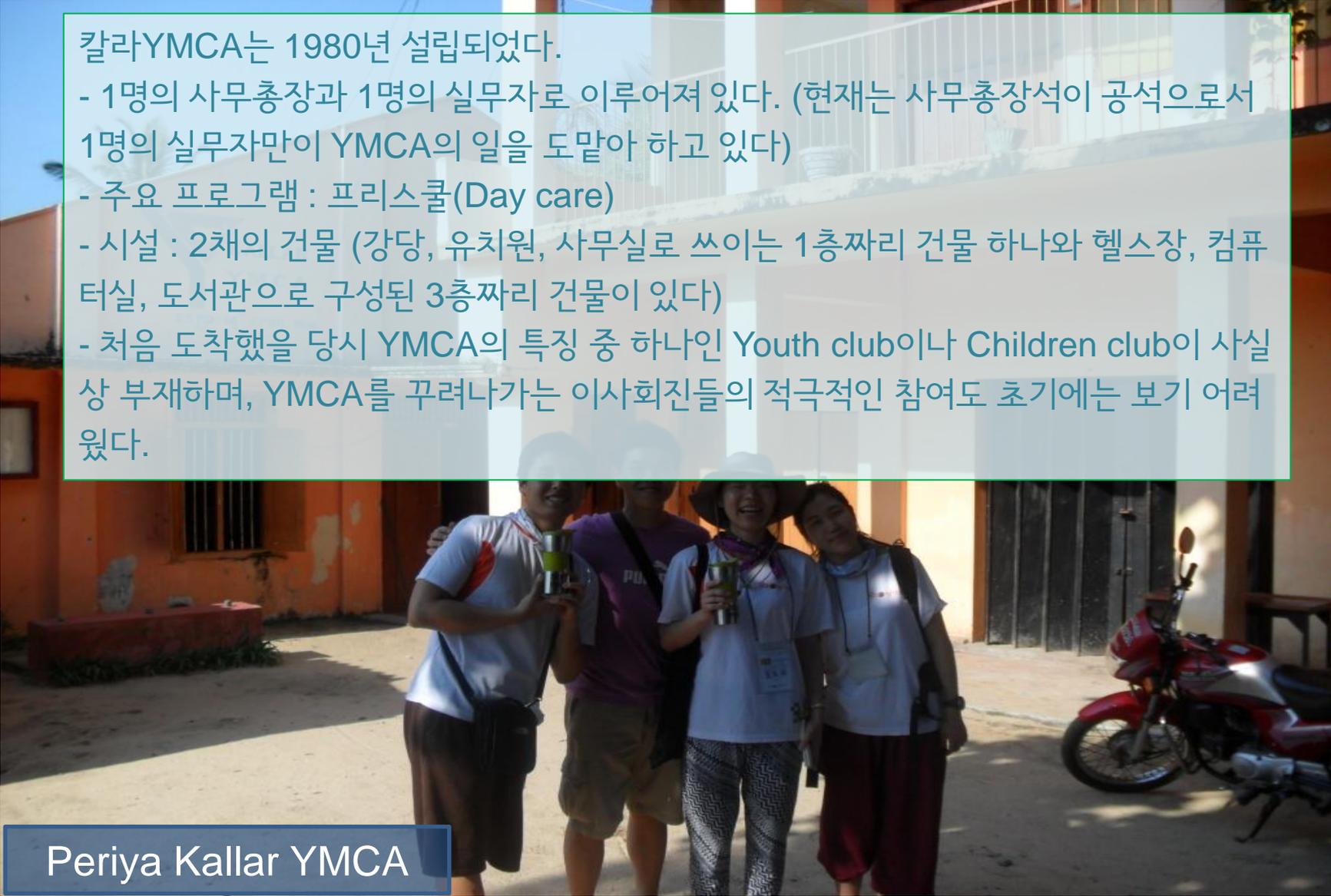
오랜 내전

- 스리랑카는 40여년동안 싱할라정부군과 타밀반군(LTTE)사이의 오랜 내전이 전개되어왔다.
- 2009년, 싱할라정부군은 타밀반군을 모두 진압하고 내전종결을 선언하였다.
- 칼라 역시 내전이 전개되던 북동부 지역에 속해있으며 내전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활동필드- Kallar YMCA

칼라YMCA는 1980년 설립되었다.

- 1명의 사무총장과 1명의 실무자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는 사무총장석이 공석으로서 1명의 실무자만이 YMCA의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 주요 프로그램 : 프리스쿨(Day care)
- 시설 : 2채의 건물 (강당, 유치원, 사무실로 쓰이는 1층짜리 건물 하나와 헬스장, 컴퓨터실, 도서관으로 구성된 3층짜리 건물이 있다)
- 처음 도착했을 당시 YMCA의 특징 중 하나인 Youth club이나 Children club이 사실상 부재하며, YMCA를 꾸려나가는 이사회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초기에는 보기 어려웠다.

A photograph showing four people standing in front of a building. They are wearing white t-shirts and dark shorts or pants. They are holding water bottles. A red motorcycle is parked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Periya Kallar YMCA



주요활동

- 타밀 배우기
- 리서칭
- 고정 프로그램
 - 도서관 만들기
 - 방과후 교실 - 아미스쿨
- 350ppm 캠페인



타밀 배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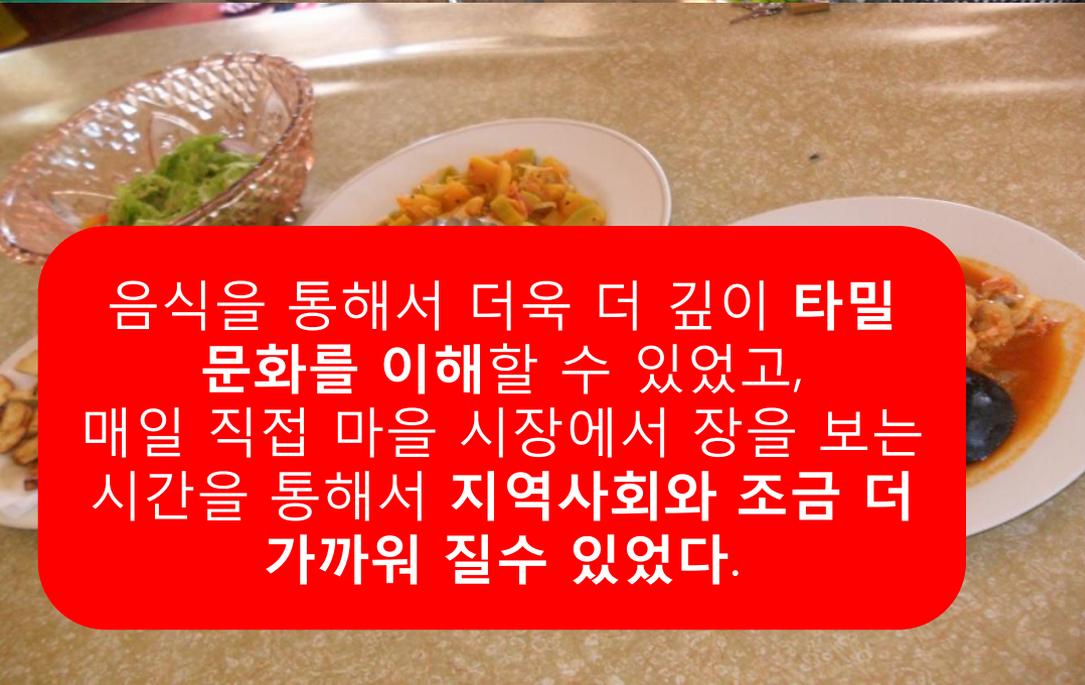
타밀어 교실



타밀어를 배우는 과정은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던 시간

언어는 사회를 이해하는 틀:
언어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사회 전
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시간

타밀요리수업



음식을 통해서 더욱 더 깊이 타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매일 직접 마을 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간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조금 더
가까워 질수 있었다.



Do what they want
Do what they have



리서칭

※ 활동 목적

스리랑카로 파견되는 9번째 기수이지만, 칼라에서 활동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3월 한달 동안 칼라에서 파악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추고, 라온아띠 단원들과 칼라YMCA의 역량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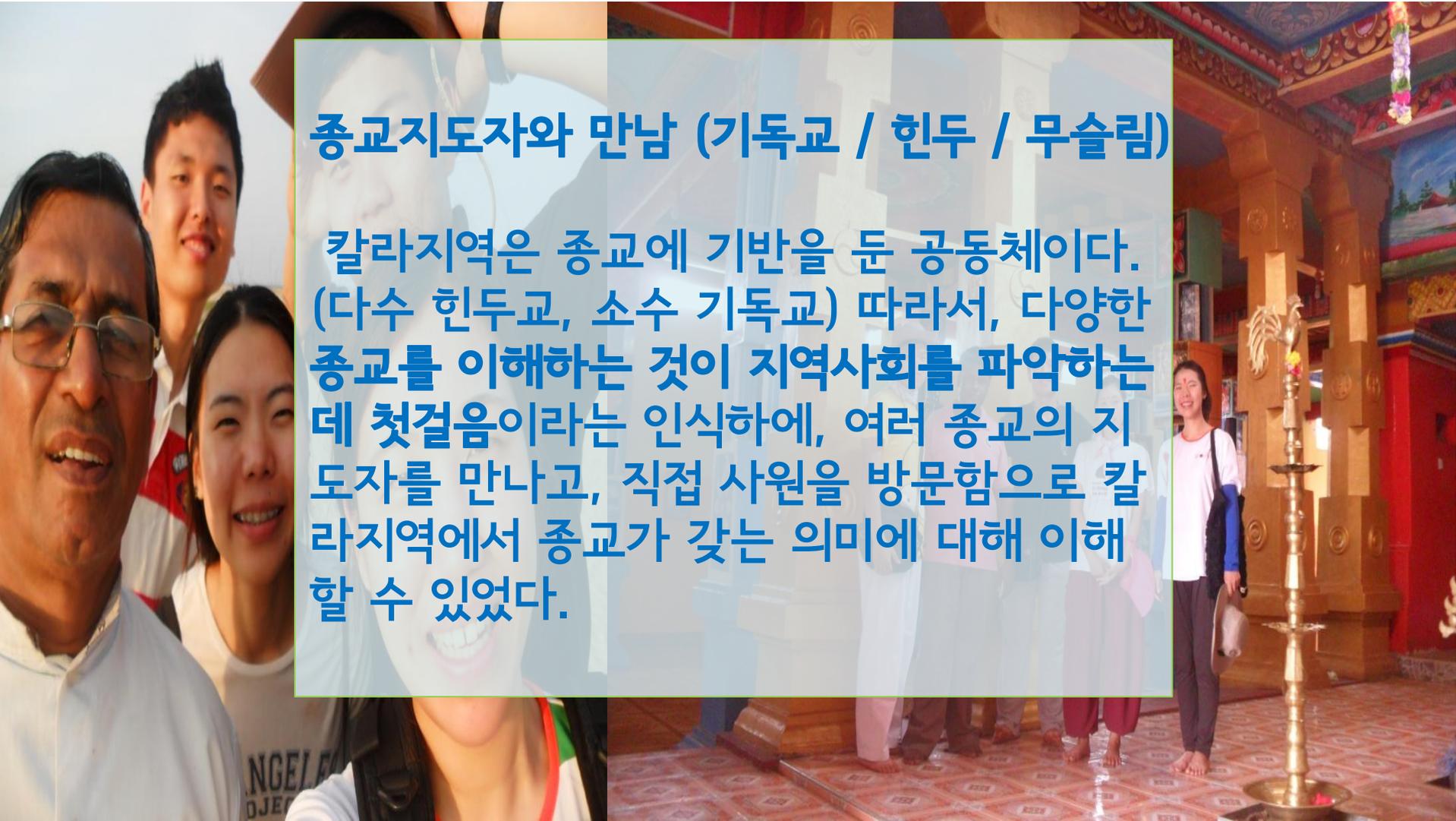
-칼라에는 학교 수업 이외에 따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 이와 반대로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우리 단원들을 따라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보였다. 칼라에는 학교와 학원 외에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문화적 기반이 전혀 없다.

-이에 라온아띠 단원들은 방과 후 학원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 학교(Atti school)'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스리랑카 8기의 활동을 참고 하여 '어머니 교실(Lecture for Mother)'을 함께 구상하였다.

리서칭 그 이전, 지역과의 만남

종교지도자와 만남 (기독교 / 힌두 / 무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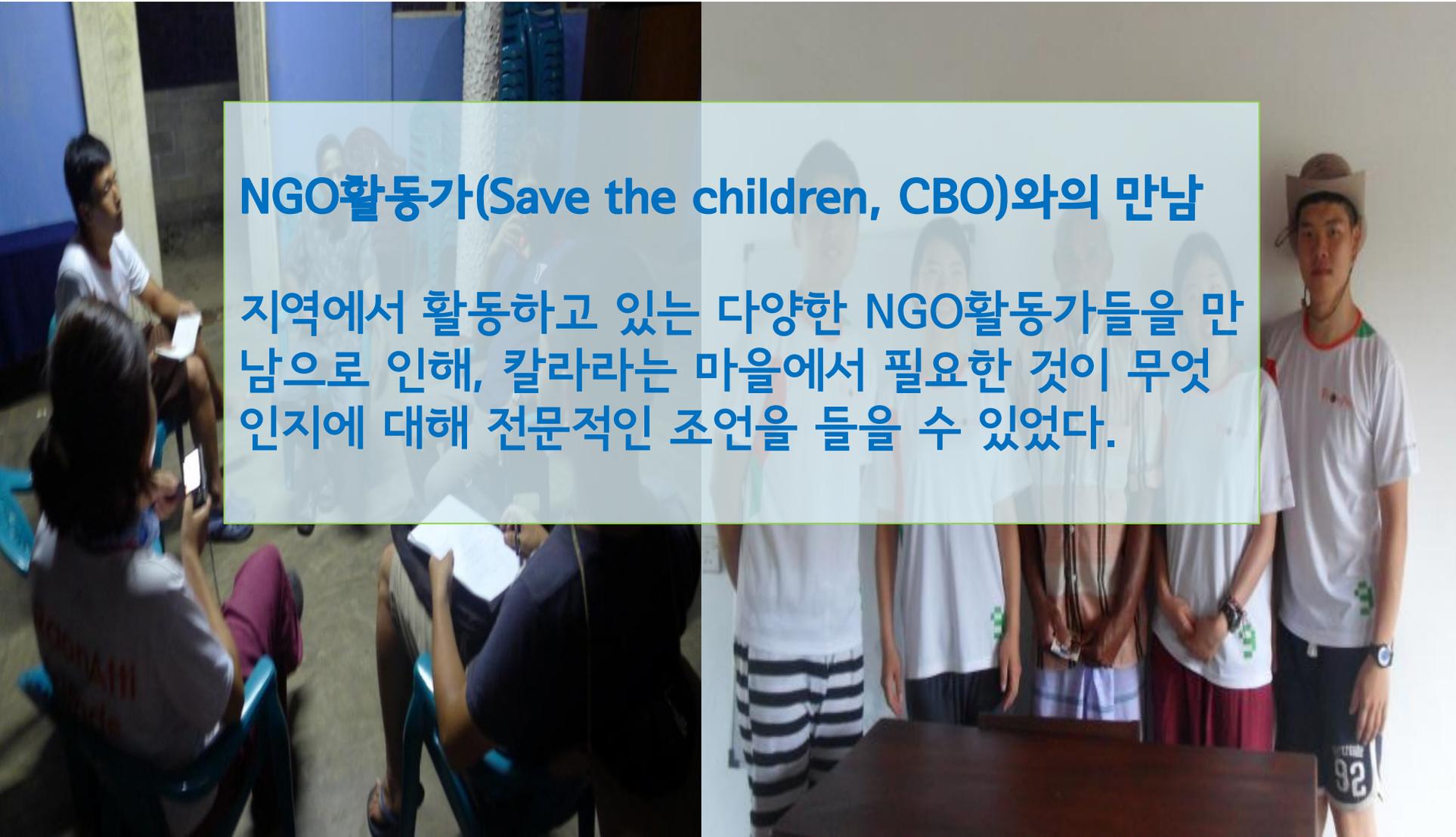
칼라지역은 종교에 기반을 둔 공동체이다. (다수 힌두교, 소수 기독교) 따라서, 다양한 종교를 이해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파악하는데 첫걸음이라는 인식하에, 여러 종교의 지도자를 만나고, 직접 사원을 방문함으로써 칼라지역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리서칭 그 이전, 지역과의 만남

NGO활동가(Save the children, CBO)와의 만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NGO활동가들을 만남으로 인해, 칼라라는 마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리서칭 유스멤버와 함께 문항작성



① 유스멤버와 함께 문항작성

- 유스 멤버와 함께 프로그램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토의 하고, 기본적인 질문사항과 문항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 코디네이터와 함께 초안을 검토하고 문항 중 일부를 수정 하였다.
ex) 이 설문지는 물질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통계를 만들어 활동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임을 명시 하였다.
- 아이들을 위한 질문지와 어머니를 위한 질문지로 나누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사자가 직접 문항지를 작성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유스 멤버의 도움으로 영어로 쓴 문항지를 현지어(타밀어)로 번역하고 인쇄하였다.

지역 초등학교를 거점으로 한 설문조사



② 설문조사 단계

○ 유스멤버의 제안

- 지역 초등학교(3곳)를 거점으로 하여 학생과 학부모와 만남을 제안
- 각 학교 교장선생님의 사전 협조를 통해 중간고사 이후 성적표를 받으러 오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라온아띠 소개와 활동의 목적, 리서칭의 의도 및 기대를 설명한 후 설문지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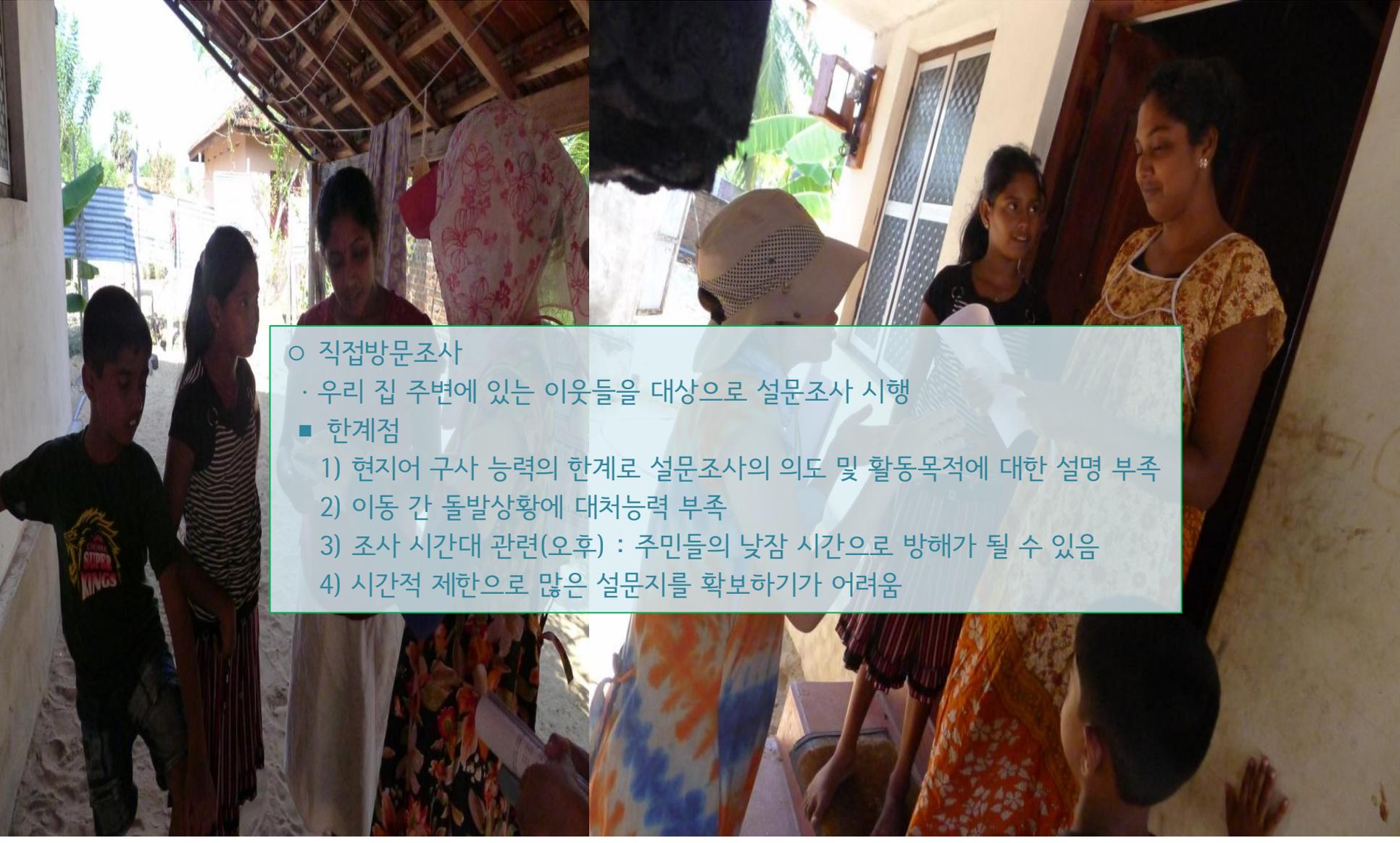
지역 초등학교를 거점으로 한 설문조사



■ 한계점 및 수정

- 학교를 거점으로 하여 '방과후 학교'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 '어머니교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파악하는 부분에서 설문 대상 선정 한계
- 설문조사 방식 수정
 -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러 주민들을 직접 만나며 설문 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이외에도 주민들과 라온아띠 간의 친밀한 관계 맺기를 기대

직접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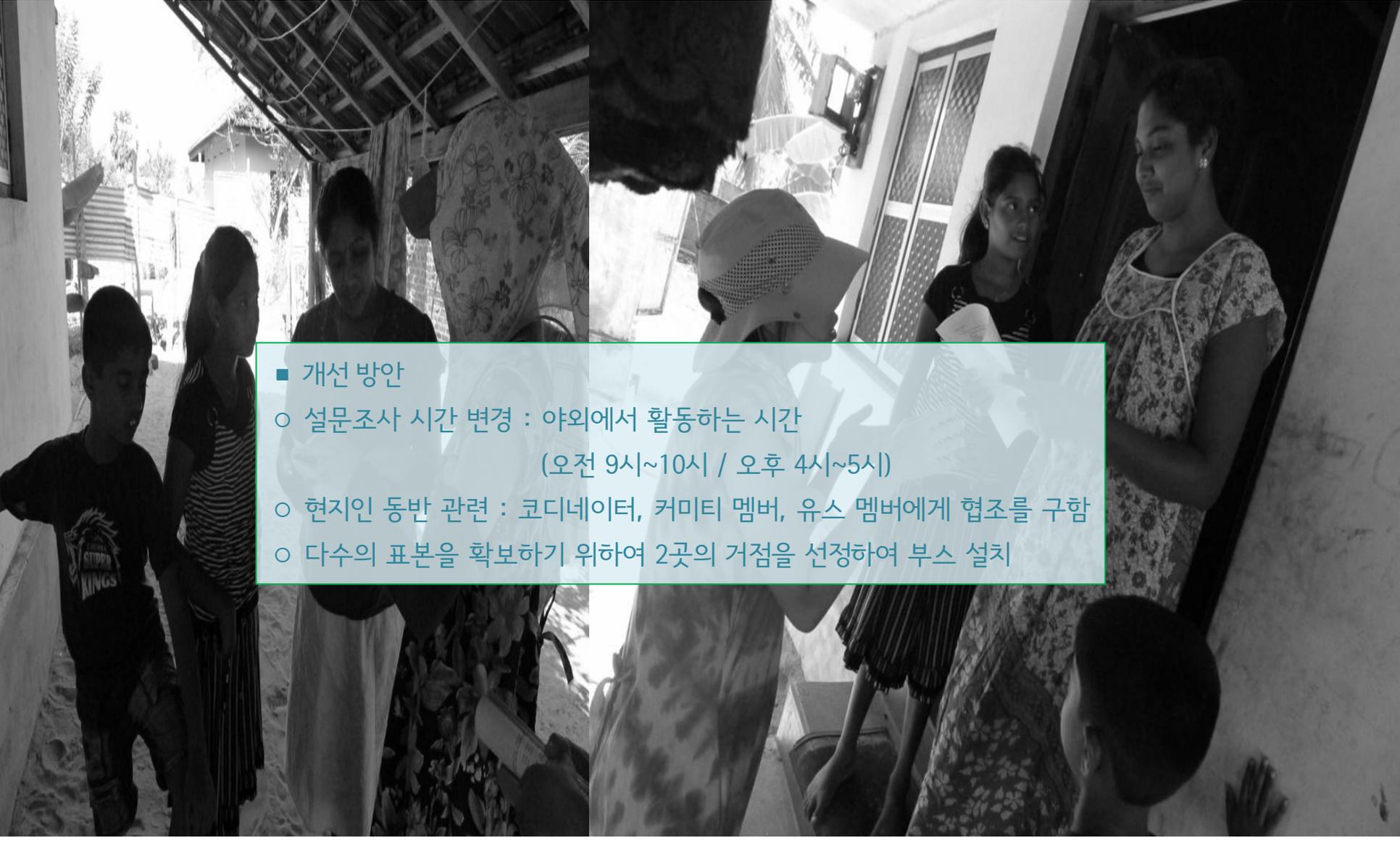
○ 직접방문조사

-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

■ 한계점

- 1) 현지어 구사 능력의 한계로 설문조사의 의도 및 활동목적에 대한 설명 부족
- 2) 이동 간 돌발상황에 대처능력 부족
- 3) 조사 시간대 관련(오후) : 주민들의 낮잠 시간으로 방해가 될 수 있음
- 4) 시간적 제한으로 많은 설문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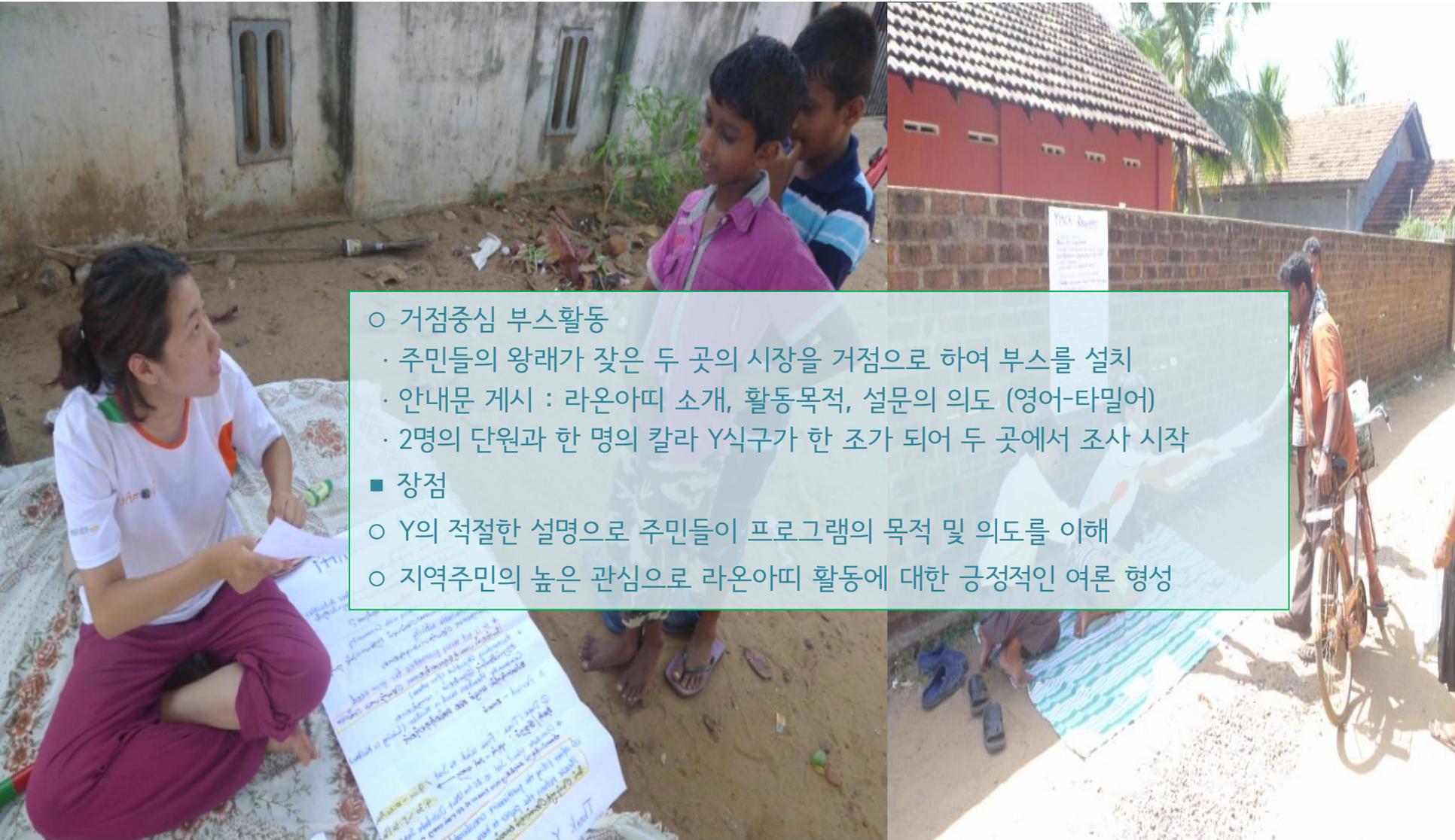
직접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 개선 방안

- 설문조사 시간 변경 :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
(오전 9시~10시 / 오후 4시~5시)
- 현지인 동반 관련 : 코디네이터, 커미티 멤버, 유스 멤버에게 협조를 구함
- 다수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2곳의 거점을 선정하여 부스 설치

거점중심 부스활동을 통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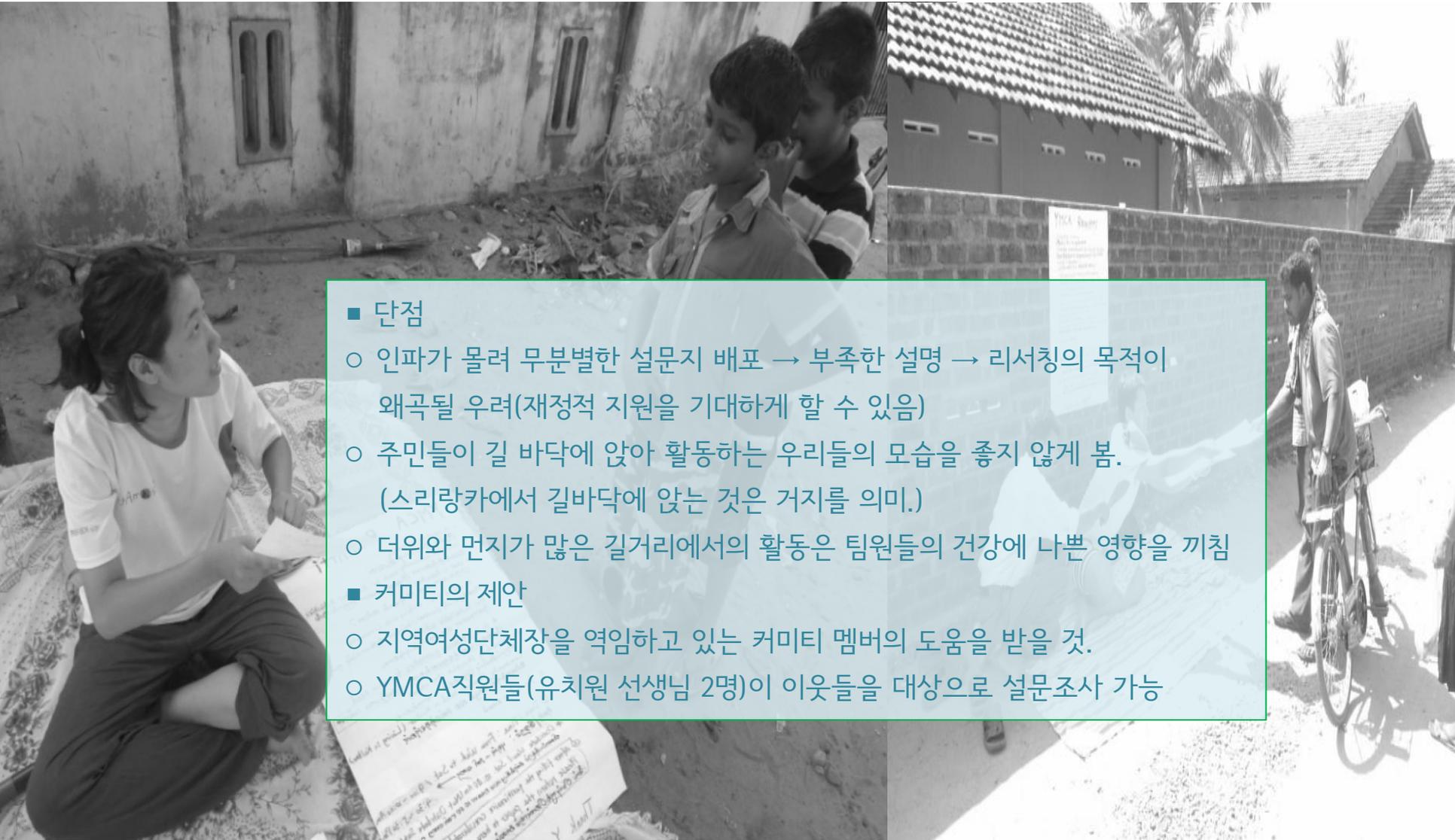
○ 거점중심 부스활동

-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두 곳의 시장을 거점으로 하여 부스를 설치
- 안내문 게시 : 라온아띠 소개, 활동목적, 설문 의도 (영어-타밀어)
- 2명의 단원과 한 명의 칼라 Y식구가 한 조가 되어 두 곳에서 조사 시작

■ 장점

- Y의 적절한 설명으로 주민들이 프로그램의 목적 및 의도를 이해
-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으로 라온아띠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형성

거점중심 부스활동을 통한 설문조사



■ 단점

- 인파가 몰려 무분별한 설문지 배포 → 부족한 설명 → 리서칭의 목적이 왜곡될 우려(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게 할 수 있음)
- 주민들이 길 바닥에 앉아 활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좋지 않게 봄.
(스리랑카에서 길바닥에 앉는 것은 거지를 의미.)
- 더위와 먼지가 많은 길거리에서의 활동은 팀원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침

■ 커미티의 제안

- 지역여성단체장을 역임하고 있는 커미티 멤버의 도움을 받을 것.
- YMCA직원들(유치원 선생님 2명)이 이웃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가능

지역단체를 통한 설문조사



○ 지역 단체와 YMCA와 협조

· 라온아띠 커미티 멤버 중 '칼라 여성 단체'의 총장을 맡고 있는 회원이 있었다. 우리의 리서칭을 돕기 위해 여성단체와 모임을 주선해 주었다.

1. 라온아띠에 대한 설명과 리서칭의 목적,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하였다.
2. 20여명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었고, 상점을 운영하는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설문지 분배와 수거 활동에 협조하였다.
3. 라온아띠 단원들은 커미티 멤버의 가정과 여성단체회원들의 상점을 거점으로 리서칭을 실시하였다.



리서칭 수거, 분석 및 공지



- 여러 가지 시행 착오와 수정을 통하여 리서칭을 마무리 하였다.
- 총 200장 가량의 설문지를 수거하였고, 유스멤버들과 함께 설문지를 번역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서칭을 통해 느리지만 지역 사회의 요구를 작게나마 추측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알지 못 했던 여러 가지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지역의 일자리 부족, 쓰나미 이후 지역 기반 시설 복구 미흡, 문화시설 부족 등)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9기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지역에 파견 될 다음 기수 단원들과 모라투와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배 기수들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 리서칭 결과를 분석하여 표로 만들고 수치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 **타밀어로 리서칭 결과 대자보를 작성하여 지역 주요 거점(상점, 이동로)에 부착**

■ 결과

- 방과후 학교 : 월 ~ 금 / 오후4시 ~ 5시 / 수업내용(영어, 체육, 음악)
- 어머니 교실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 오후4시 ~ 5시 / 다양한 관심사에 관하여 강사 초빙예정



‘사람’을 모으고 지역문화공간을 창출해 낸다
도서관 만들기

왜 도서관인가?

도서관 만들기 시작

‘사람’을 모으는 공간.

칼라지역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화, 놀이공간!

도서관 만들기 - 청소와 정리



자원봉사자 모집 - 함께 일하기



도서관 만들기 - 책 청소와 책 커버싸기



오랜 기간 방치되어 손상된 책들.

- 2011년 이후 YMCA 도서관은 문을 닫은 상태다.
그 이후 많은 책이 분실되거나 도난 당했지만 여전히 많은 책들이 남았지만 좀 먹은 책이거나 먼지와 습기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상태이다.

책 청소를 시작했다.

- 우선, 책들을 언어에 따라 타밀어, 싱할라어, 영어 등으로 나눈 뒤 형겅을 이용해 책에 붙은 먼지를 닦아내는 작업을 하고,
- 오랜 시간동안 방치된 책이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책 커버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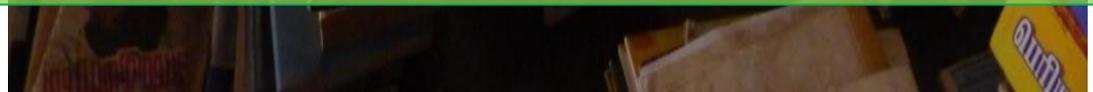
도서관 만들기 - 색인만들기와 책 배치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색인 만들기를 시작

색인에 따라 책을 배치.

- 우선, 책을 언어에 따라 타밀어, 싱할라어, 영어 등으로 나눈 뒤 형겅을 이용해 책에 붙은 먼지를 닦아내는 작업을 하고,
- 오랜 시간동안 방치된 책이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책 커버를 썼다.



도서관 만들기 - 이용수칙만들기



이용수칙만들기

- 지역 훈련 중에 방문 한 남목 청소년 문화 센터의 도서관 이용수칙을 참고하여 칼라 도서관에도 똑같은 수칙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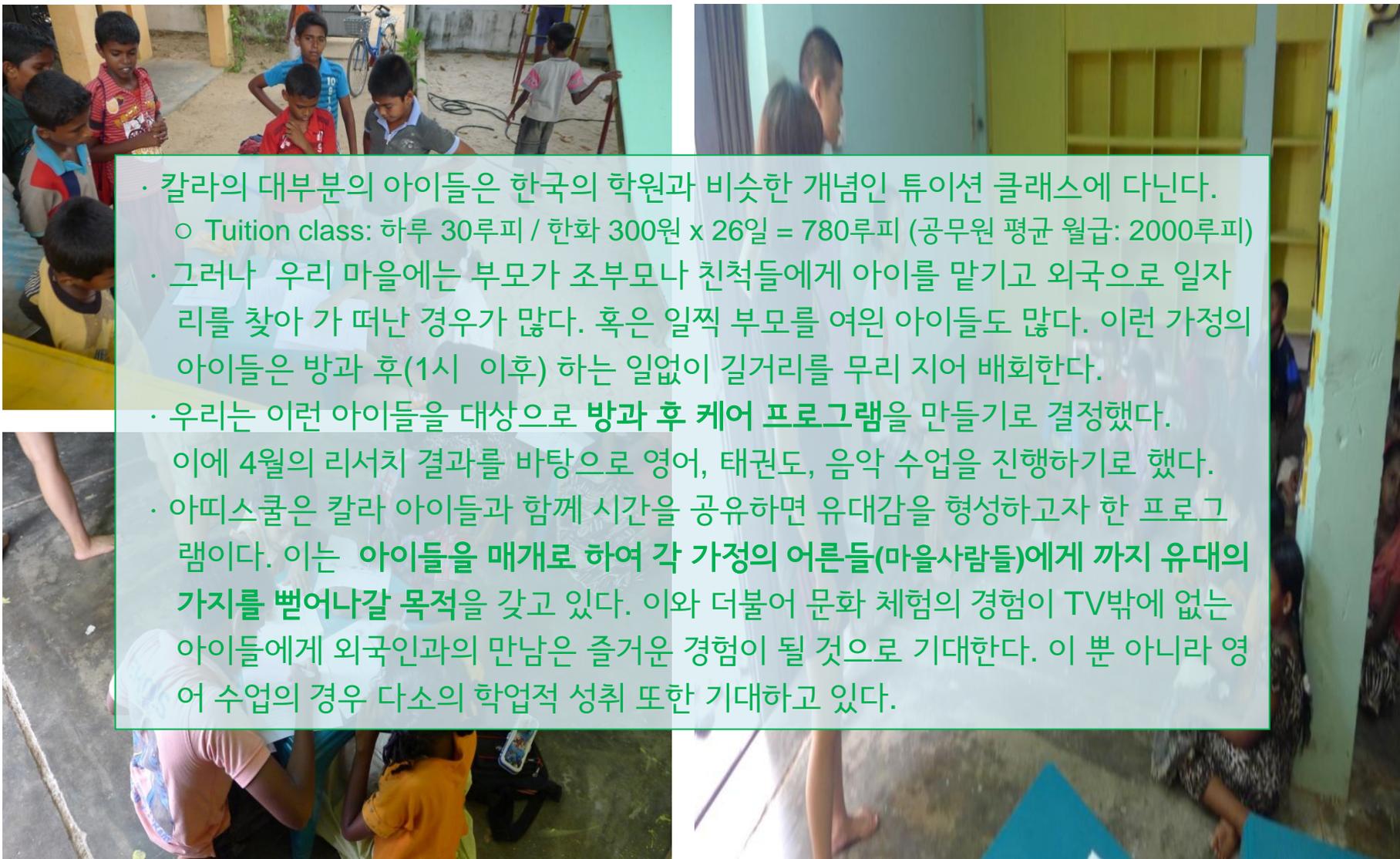
- 활동 마지막에 시간 조절을 못하여 담당 코디네이터와 이용수칙에 대한 의견을 나누지 못하였고, 타밀어 로 번역하여 비치하지 못했다.
- 10기 단원들이 담당 코디네이터와 회의 후 이용수칙 만들기 부터 활동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아이들을 통해 마을을 만나다



아띠 스쿨

아미스쿨 의도 및 목적



- 칼라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국의 학원과 비슷한 개념인 튜이션 클래스에 다닌다.
 - Tuition class: 하루 30루피 / 한화 300원 x 26일 = 780루피 (공무원 평균 월급: 2000루피)
- 그러나 우리 마을에는 부모가 조부모나 친척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가 떠난 경우가 많다. 혹은 일찍 부모를 여윈 아이들도 많다.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방과 후(1시 이후) 하는 일없이 길거리를 무리 지어 배회한다.
-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케어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에 4월의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태권도, 음악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 아미스쿨은 칼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면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아이들을 매개로 하여 각 가정의 어른들(마을사람들)에게 **까지 유대의 가치를 뽐어나갈 목적**을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 체험의 경험이 TV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외국인과의 만남은 즐거운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뿐 아니라 영어 수업의 경우 다소의 학업적 성취 또한 기대하고 있다.

아피스쿨 - 영어

-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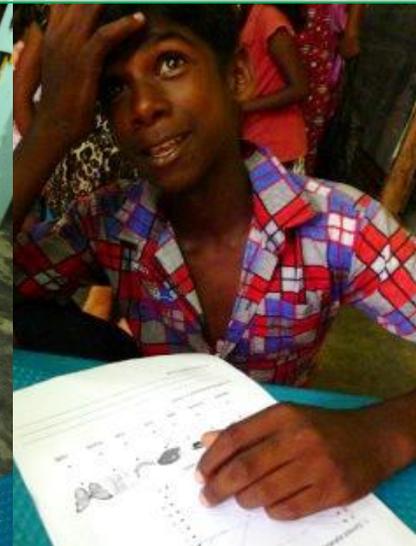
리서칭 결과 아피 스쿨에서 영어 수업을 바라는 요구가 가장 높았다. 스리랑카는 영어와 싱할라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밀어가 모국어인 타밀 지역 사람들에게 영어와 싱할라어는 따로 돈과 노력을 들여 일부러 배워야 할 언어이다. 이 때문에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상급생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단원들은 고급 영어 실력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 수업 소개

1) 수업 첫 날,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찾아왔고 나이에 상관없이 영어 실력 또한 모두 달랐다.

2) 이에 나이,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4개의 반으로 나누어 수업하기로 결정하였다.

- ① 기초 알파벳 과정(윤도희 단원) : 알파벳 노래 등으로 흥미를 유발하여 기본적인 알파벳(대문자, 소문자) 학습
- ② 기초 단어 과정(민광필 단원) : 알파벳 순서에 따라 기본적인 영어단어 학습
- ③ 기본 영어 과정(김나래 단원) : 기초 영어단어를 기본으로 간단한 문장, 회화 학습
- ④ 기본 회화 과정(선영석 단원) :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위한 문법, 단어, 읽기 학습



아피스쿨- 영어

- 시행착오

- 1) 달는 나눔을 할 때마다 그날의 수업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했다. 서로 조언을 들으면서 단원마다 생각하는 수업의 방향이 다름을 이해했다. (데이 케어의 목적과 학업적 성취 목적 사이에서 단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의견이 조금씩 다름)
- 2) 두 세번 수업을 진행하고 보니 아이들이 자신과 맞지 않는 반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달는 나눔에서 단원들은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유동적으로 반을 옮길 수 있도록 합의 했다.
- 3) 새로운 코디네이터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수업에 대해서 궁금해할 경우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수업 계획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체계 없이 수업을 진행했던 것을 반성하며 수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였다.

- 기대

- 1) 아이들이 처음에는 외국인인 우리들 때문에 영어 수업에 참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어에 조금이나마 흥미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 2) 우리의 주된 목적은 학업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가정에 대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칼라의 실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알아갈 수 있다.(부모님 이야기, 전쟁, 쓰나미 이야기)
- 3) 영어 수업을 통해 학구열이 높은 가정의 어른들이 YMCA는 물론 라온아띠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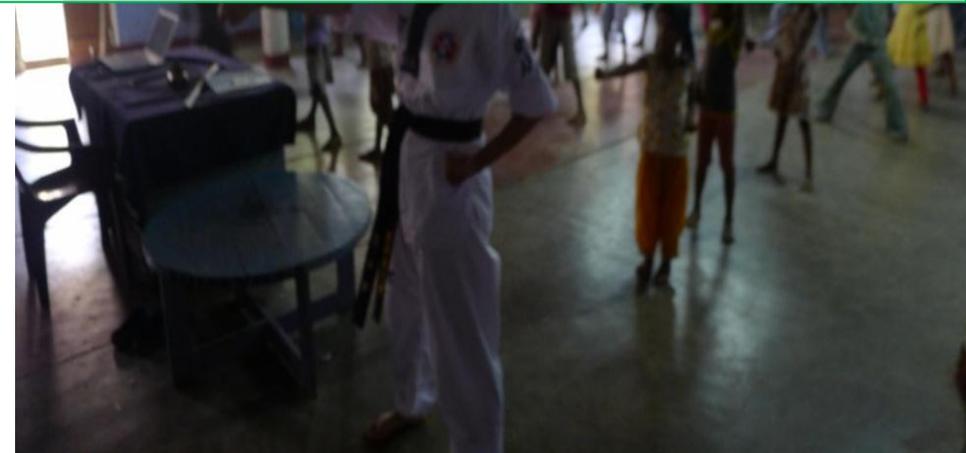
아피스쿨 - 체육

-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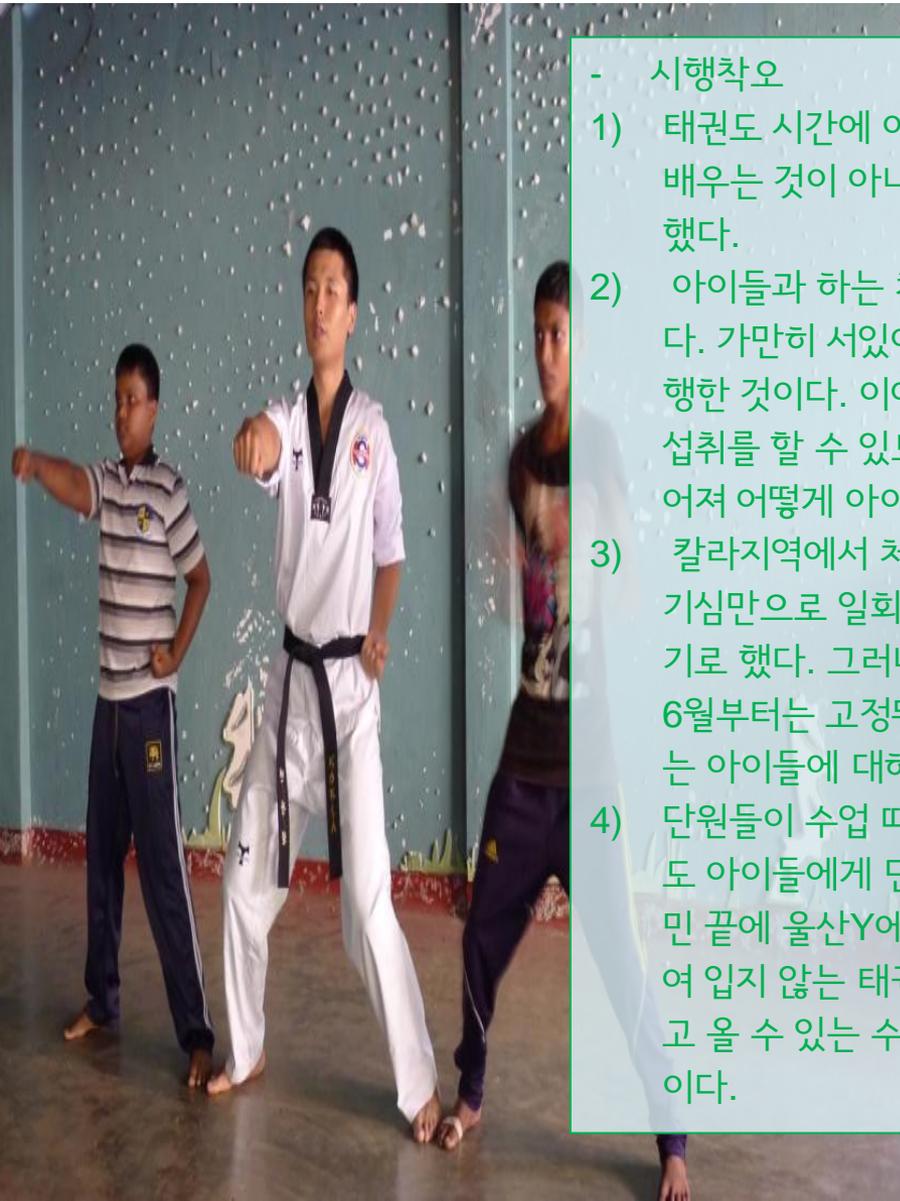
우리가 길을 지나다 남자 아이들을 만나면 그들이 언제나 묻는 말이 있다. 쿵푸 할 줄 아니? 가라데 할 줄 아냐는 것이 그것이다. 리서칭에서 두 번째로 인기 많은 수업도 역시 체육 수업이었다. 그러나 태권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단원이 없었기 때문에 태권도 수업을 만드는 것이 망설여졌다. (선영석, 민광필 단원은 태권도를 하지 않은지 매우 오래됨) 그러나 울산 Y에서 미흡하나마 태권무를 배웠고, 태권도를 오랜 시간 동안 하지 않았지만 단증을 갖고 있는 단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수업 소개

- 1) 수업 첫 날,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왔다. 첫 수업에 80명 가량의 아이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공간적, 단원의 역량적 어려움을 겪었다.
- 2)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수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나이를 기준으로 3시 30분 반, 4시 20분 반으로 태권도 수업을 2개의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3) 수업 초기의 목표는 태극 1장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기 어려워 하고 태권도에 대해 제대로 아는 단원이 없기 때문에(두 명의 여자 단원은 태권도의 태자도 모름) 수업의 목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에 단원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아이들도 배우고 싶어하는 '강남 스타일' 태권무를 가르치기로 수업의 목표를 바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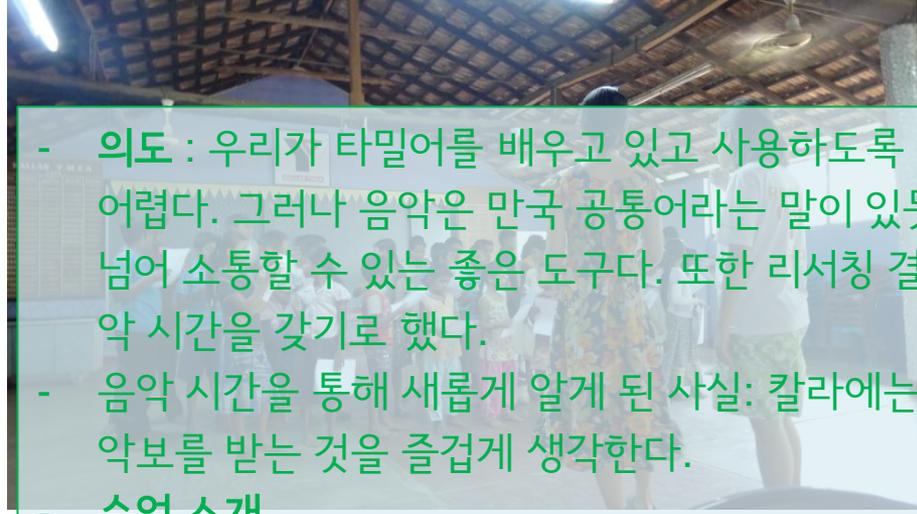
아피스쿨 - 체육



- 시행착오

- 1) 태권도 시간에 아이들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태권도는 남을 공격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수양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필요했다.
- 2) 아이들과 하는 체육 수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미처 아이들 입장을 생각 하지 못했다. 가만히 서있어도 땀이 나는 더운 날씨에 쉬는 시간 없이 태권도를 한 시간이나 진행한 것이다. 이에 20분 수업 후 5분의 쉬는 시간을 두어 아이들이 수업 중간에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그러나 쉬는 시간 후 아이들의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져 어떻게 아이들을 집중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 3) 칼라지역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무술수업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지만 호기심만으로 일회성에 그친 학생도 많다. 5월은 출석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태권무'를 배우게 되면 진도를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6월부터는 고정된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간에 새로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팀원간의 합의가 계속되고 있다.
- 4) 단원들이 수업 때 입는 태권도복을 입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또한 칼라Y에서도 아이들에게 단체복을 입히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안에 대한 고민 끝에 울산Y에 도움을 청했다. 울산Y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태권도장에 연락하여 입지 않는 태권도복을 모아 주었다. 그러나 사이즈가 서로 다르며 한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수량도 한정적이어서 현재 어떤 방식으로 도복을 나눠 줘야 할 지 고민이다.

아띠스쿨 - 음악



- 의도 : 우리가 타밀어를 배우고 있고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과 의사 소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음악은 만국 공통어라는 말이 있듯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감정을 공유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 또한 리서칭 결과에서 음악에 대한 요구도 있었기에 매주 금요일은 음악 시간을 갖기로 했다.

- 음악 시간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칼라에는 음악 수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음표를 보고 악보를 받는 것을 즐겁게 생각한다.

- 수업 소개

1) 라온아띠 단원들을 포함하여 합창단을 만들고자 하였다.

2) 어떤 노래를 고를까? '도레미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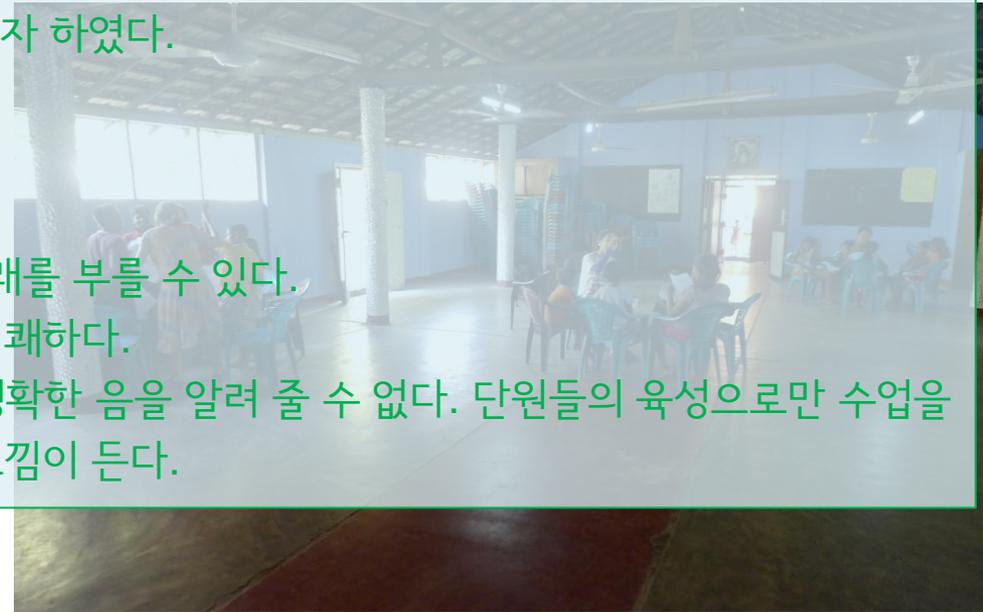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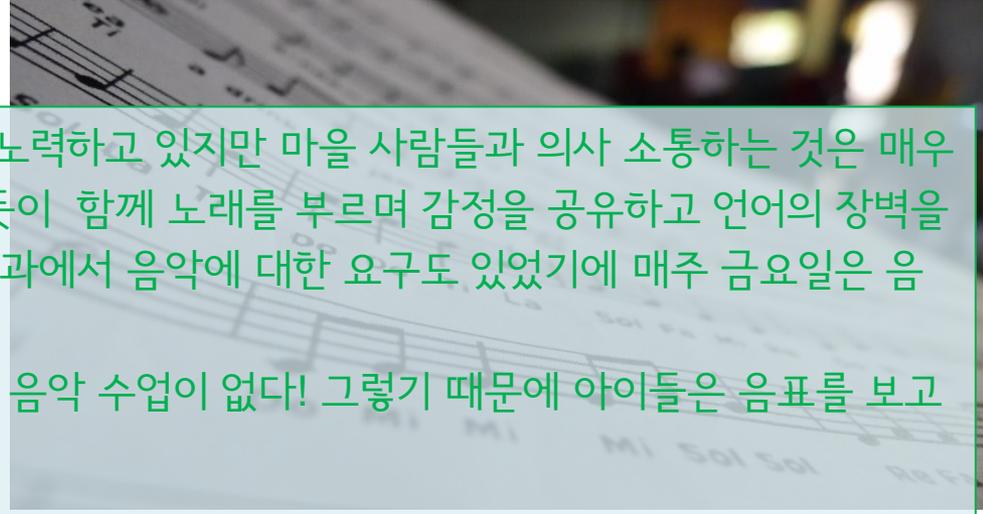
· 왜 '도레미송'인가?

① 쉽다.

② 기본적인 음계로 구성되어 어렵지 않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③ 음표를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고 음악이 경쾌하다.

- 시행 착오 : 어떠한 음악적 도구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음을 알려 줄 수 없다. 단원들의 육성으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간마다 음계가 달라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아띠 스쿨 - 이웃되기



아띠
스쿨

아이들

부모

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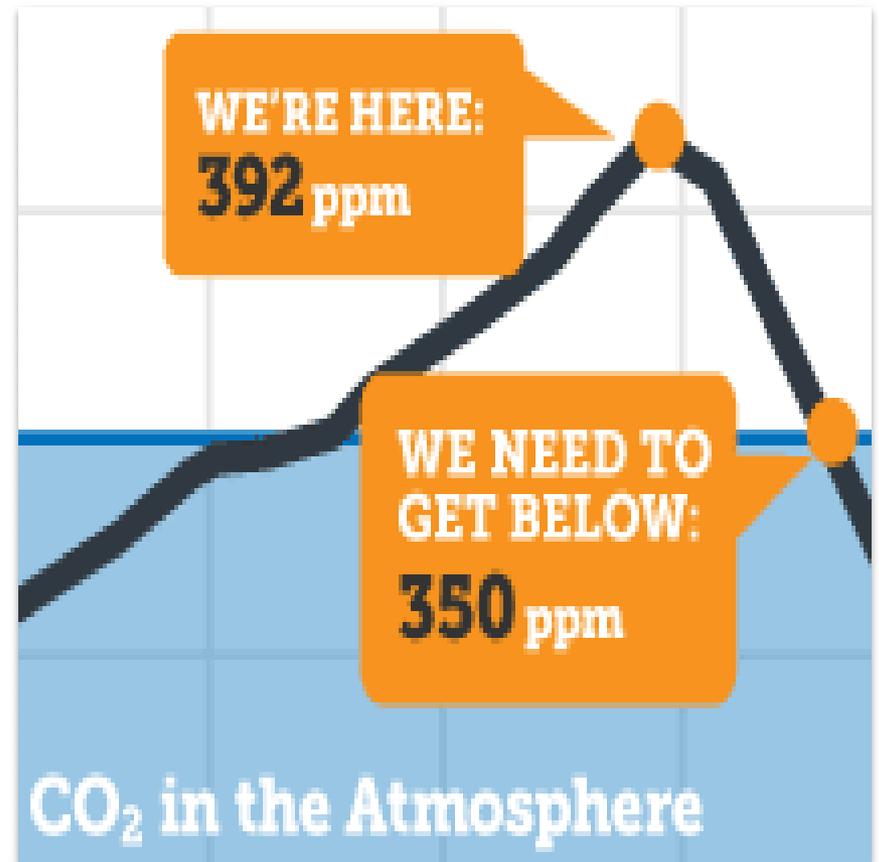
마을



350ppm 캠페인

350ppm 환경 영화제

6월에 있을 공식적인 Eco 캠페인인 350ppm 활동 전에, 350ppm 활동을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만들고자 'Green Day'라는 이름의 행사를 기획하였다. 그 기획의 첫걸음으로 보름날인 25일에 지역 청년들을 만나 함께 환경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350ppm 환경 영화제

먼저 청년들에게 우리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350ppm관련 PPT로 간단히 350ppm이 무엇인지를 나눠보았다. 스리랑카 뿐만 아니라 라온아피가 배치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이 350ppm과는 거리가 먼 나라들이다. 그 부분에서 조금은 걱정하며 설명을 이어갔으나 진지하게 듣는 그들의 모습에 안도를 느꼈다.

곧이어 관련 영상을 보여주며 조금 더 알기 쉽게 한번 더 나누었고, 마지막으로 환경재난 영화인 '투모로우'를 보며 영화 상영시간을 가졌다.



350ppm 캠페인 ————— 개 관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라온아띠 8개국 연대활동으로 350ppm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스리랑카 칼라팀은 350ppm 캠페인 활동으로 인간쓰레기통, 탄원편지, 환경퀴즈대회, 식물 나눠주기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예산문제와 활동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인간쓰레기통과 환경퀴즈대회로 350ppm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350ppm 캠페인 — 인간쓰레기통



- 날짜 : 6월 4일 (화요일)
- 보여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라온아띠 단원들은 350ppm 이 무엇인지,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밀어 안내판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4개의 쓰레기통(종이, 캔, 유리, 플라스틱)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의 재활용에 대한 참여를 유도했다.
- 유스멤버와 함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를 선정하여 길 거리를 돌며 우리 스스로도 쓰레기를 주워 분리수거를 하고, 이 모습을 본 지역 주민들에게도 참여를 유도하였다.

350ppm 캠페인 — 인간쓰레기통



[오전 시간]

- 오전시간(7:00~7:30)에는 아이들의 등교시간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곳길을 캠페인장소로 선택하였다. 지나다니며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안내판을 보여주며 설명을 하고 분리수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구 학교 교장선생님의 도움으로 수업시간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학생들에게 350ppm이 무엇인지, 분리수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에게 직접 쓰레기를 받아 분리수거하도록 하였고, 아미스쿨 아이들이 많아 더욱 많은 아이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오후 시간]

- 태권도 수업이 끝난 직후 (5:00~5:30) 아미스쿨 아이들에게 함께 캠페인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시간은 많은 아이들이 튜이션클래스(개인 과외 개념)를 가는 시간이기에 역시 유동인구가 많다. 아이들과 함께 CO2줄이기를 외치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다시금 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350ppm 캠페인 — 환경퀴즈대회



[개요]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 350ppm과 기후변화등에 대하여 아피스쿨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예정대로 진행하려 했던 날, 예상치 못하게 하루 종일 정전이 나는 사태가 발생 하여 무리라는 판단이 되었고, 결국 다른 날로 미뤄지게 되었다. 첫 날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아이들이 모여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함께 해 준 아이들이 있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

1) 강의 : 우선적으로 아이들에게 **350ppm과 CO2가 무엇이고 왜 문제이며**, 현재 지구상에 이러한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었다. PPT를 준비하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그림과 사진, 쉬운 용어들을 넣어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았다.

* 콘텐츠 : **350ppm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온난화 현상, 자연재해 등에 관한 이야기, 매일 실천 할 수 있는 것들 (물, 전기 아끼기, 나무심기 등등), 350ppm 동영상**

350ppm 캠페인 — 환경퀴즈대회



- 큰 지구모양의 보드판을 만든후, 그 위에 인간쓰레기통 활동으로 수거한 쓰레기들을 부착했다. 퀴즈대회에서 학생들이 지구모형 위에 붙어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 보드판에 붙이도록 했다. 지구판 위에 붙은 쓰레기를 분리수거 보드판에 옮겨 붙이면 깨끗한 지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인식개선에 노력하였다.
- 칼라에서 쓰레기 차는 일주일에 한번 마을을 방문하며 그 이외의 쓰레기를 모두 태우거나 매립시킨다. 분리수거의 개념이 생소했던 아이들은 재미있게 환경퀴즈대회에 참여했다.

350ppm 캠페인 — 환경그리기



환경 교육과 퀴즈에 참여한 친구들과 함께 350ppm을 의미하는, '350'이 인쇄된 종이에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아이들이 환경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주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냈다. 고학년의 아이들도 진지하게 활동에 참여해 주어서 고맙다.



ESTD : 14TH APRIL 1980



350ppm 캠페인 — 활동 이후



[활동 이후]

- 활동이 끝난 이후,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칼라YMCA에 쓰레기통을 비치하기로 하였다. 칼라YMCA에는 프리스쿨도 있고 우리 아피스쿨도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에게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 현재, YMCA를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분리수거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쓰레기통이 차면 아이들과 함께 칼라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온다.

[소감]

- 아피스쿨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번 활동이 꽤나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 현재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여하고 쓰레기를 비움에 있어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떠난 이후 과연 칼라YMCA에서 어떻게 쓰레기통을 관리할 지 지속적으로 토의 중에 있다.
- 문제는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한다 해도 스리랑카 안에 분리수거 된 쓰레기를 처리할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CY-SL 유스 워크숍

문화 교류 프로그램



- NCY-SL 유스 워크숍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계를 맺고 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자리였다.
- 단원들 역시 칼라YMCA 소속으로서 다양한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소통의 도구로서 문화, 예술을 통한 통합과 연대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치는 오랜 기간의 내전이 끝난 이후, 스리랑카 청년들이 사회적인 통합과 관련하여 주요한 역할을 해낼 역량을 키우도록 한 자리이기도 하였다.

NCY-SL 유스 워크숍

문화 교류 프로그램



- 3박 4일의 워크숍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또한 청년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 짧은 기간이었지만, 타밀과 싱할리 지역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내전 이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 민족, 언어의 구분을 뛰어넘는 예술활동을 함께하며 재통합의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었다.





무화탐방

싱할리 문화 체험



- 스리랑카의 중부 지역과 산간지역을 방문
- 스리랑카의 불교 문화와 싱할라족의 고대 왕조 유적지 방문
- 산간지역의 홍차 밭과 공장 방문, 산간지역의 추위 경험
- 소감
- 단원들은 익스커션 동안 지났던 길 위에서 싱할라족의 생활, 홍차밭 노동자로 살아가는 인도계 타밀족의 삶을 엿보면서 한 나라안에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 스리랑카 북부- 내전 중심지 방문

- 싱할리군과 타밀군의 주요 격전지였던 스리랑카 북부 지역은 2009년에 내전이 끝났지만 4년이 지난 현재에도 파괴된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주민들 또한 가난과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
- 전쟁 시 파괴되어 버려진 수많은 마을을 보면서 전쟁이 민간인에게 끼친 참혹함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싱할리 족(승리자)에 의해 왜곡 된 전쟁이야기,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타밀 사람들.



차가운 머리, 따듯한 가슴, 서로에 대한 신뢰

**Let the people be the
solution!**